

# 『難經·五十八難』의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의 意味와 臨床 意義\*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sup>1</sup>  
趙學俊<sup>1 \*\*</sup>

## Interpretation and Clinical Meanings of 'Yang-Deficiency with Yin-Prosperity(陽虛陰盛) and Yang-Prosperity with Yin-Deficiency(陽盛陰虛) in Cold Diseases(傷寒病) from *Nangyeong*(難經)·Chapter 58

Jo Hak-jun<sup>1 \*\*</sup>

<sup>1</sup>Dept. of Korean Medicine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 : The interpretation of 'yang-deficiency and yin-prosperity, yang-prosperity and yin-deficiency in cold diseases' from *Nangyeong* has been various until now. For further understanding *Nangyeong*, the exact interpretation of this phrase has been required.

**Methods** : Collect the contents that are related this phrase from the commentary of *Nangyeong*, *Sanghannok*(傷寒論), and other traditional Chinese and Korean medical books. Based on analyzing them, compare *Nangyeong* with *Sanghamon*.

**Results** : The meaning of Yin-Yang in the phrase have 5 viewpoints, except one that this phrase is not correct. If the phrase is interpreted according to *Sanghansorye*(傷寒序例), the valid interpretation is that yin-yang has two different meaning in the one phrase.

**Conclusion** : 'Yang-deficiency and yin-prosperity' from *Nangyeong* goes for the outer symptoms of Taeyangbyeong(太陽病) in cold diseases, yang-prosperity and yin-deficiency from it goes for the inner symptoms of Yangmyeongbyeong(陽明病) in cold diseases.

Key Words : *Nangyeong*(難經), yin-deficiency and yang-prosperity(陽虛陰盛), yang-prosperity and yin-deficiency(陽盛陰虛)

### I. 序 論

陰陽이라는 글자는 여러 서적에 걸쳐 다양한 의

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동일 서적에도 각각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따라서 陰陽을 결코 두루뭉술하거나 비슷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문장을 종종 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難經』을 비롯하여 많은 『醫書』에 사용된 陰陽은 때로는 陰陽의 총론적 개념(즉 낮밤, 寒熱, 上下, 男女 등)으로 해석될 부분도 있지만, 陰陽의 특징적 개념(脈의 浮沈, 尺寸, 表裏 등)으로 이해해야만 옳은 경우도 있다.

따라서 『難經』에서 사용된 陰陽 역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편 韓方病理學에서 陰陽失調는 氣血失調, 津液不化, 營衛失調, 升降失常과 함께 基本病理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 陰陽失調는 陰陽偏勝, 陰陽偏衰, 陰陽互損, 陰陽格拒 및 陰陽亡失의 다섯으로 총괄될 수 있다.<sup>1)</sup>

그 陰陽偏勝, 陰陽偏衰에 대해 『素問調經論』에서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sup>2)</sup>이라고論하였고, 그와 관련한 치료의 마땅함과禁忌에 대해 『難經五十八難』에서 “傷寒有汗出而愈, 下之而死者, 有汗出而死, 下之而愈者, 何也? 然, 陽虛陰盛, 汗出而愈, 下之即死, 陽盛陰虛, 汗出而死, 下之而愈.”<sup>3)</sup>라고論하였는데, 『傷寒論傷寒序例』에서 『難經』과 유사하게 “夫陽盛陰虛, 汗之則死, 下之則愈, 陽虛陰盛, 汗之則愈, 下之則死. …… 況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以亡.”<sup>4)</sup>이라고 하였다.

『難經』 및 「傷寒序例」는 그 문장이 거의 유사하

기에 그 의미도 서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만, 『素問』의 문장과는 매우 다르다. 또한 『素問調經論』의 문장은 『韓方病理學』에서 陰陽偏勝, 陰陽偏衰를論한 것으로 논하고 있지만, 『難經』 및 「傷寒序例」의 문장은 그다지 주목하지 않고 있다.

『難經』 및 「傷寒序例」의 陰陽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결국 陰陽病機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傷寒病 치료와의 관련성도 과약하기도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의 국내 연구로는 송미령<sup>5)</sup>이 『難經』 50難~61難의 내용을 분석하였으나, 『素問調經論』과의 차이점이라든가 「傷寒序例」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깊이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難經五十八難』의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에 대해 陰陽虛盛의 意味, 傷寒病的 臨床 意義와 합리적인 해석을 모색하고자 한다.

## II. 研究方法

『難經』의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와 관련하여 『難經』 및 「傷寒論」의 註釋書を 비롯하여, 기타 醫書에서 수집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위의 방법을 통해, 첫째 陰陽虛盛의 意味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분류·분석하고, 둘째 傷寒病的 治療 宜忌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傷寒序例」, 『素問調經論」, 「通評虛實論」, 「評熱病論」과 관련하여 『難經』의 합리적인 해석을 모색하였다.

먼저 『難經』의 註釋書로써 검토한 서적은 아래와 같다.

時代	著者	書籍
元	滑壽	『難經本義』
明	王九思 등	『難經集注』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清	徐大椿	『難經經釋』
	黃元御	『難經懸解』
	丁錦	『古本難經闡注』
	葉霖	『難經正義』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 조학준, 충북 제천시 신월동 세명로 65번지,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외사학교실.  
E-mail : palm01@hanmail.net Tel : 043-649-1347.  
접수일(2014년 01월03일), 수정일(2014년 02월13일), 게재확정일(2014년 02월17일).

1)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韓方病理學. 발행지 미상. 한의문화사. 2007. pp.240-241.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8.

3) 滑壽 著.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編譯. 難經本義.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257.

4) 成無己 著. 傷寒論註(『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103-104.

5) 송미령, 김용진, 윤창렬. 難經 중 疾病條에 對한 研究(II).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4(1). 1995.

民國	蔡陸仙	『中國醫學匯海·難經』
中國	南京中醫學院	『難經譯釋』
	南京中醫學院	『難經校釋』
	凌耀星	『難經校注』
	王洪圖	『難經』
臺灣	唐湘清	『難經今釋』
	黃維三	『難經發揮』
日本	丹波元胤	『難經疏證』
	膝萬卿	『難經古義』
	加藤宗博	『虛經衰腋』
	本間祥白	『難經之研究』

표 1. 『難經』의 註釋書

다음으로 『傷寒論』의 註釋書로써 검토한 서적은 아래와 같다.

時代	著者	書籍
宋	成無己	『傷寒論注』
	韓祇和	『傷寒微旨』
	朱肱	『活人書』
	龐安時	『傷寒總病論』
	許叔微	『傷寒九十論』
『傷寒發微論』		
『傷寒百證歌』		
明	陶華	『傷寒六書』
	方有執	『傷寒論條辨』
	王肯堂	『傷寒證治準繩』
清	柯琴	『傷寒論注』
	張璐	『傷寒續論』
	尤在涇	『傷寒貫珠集』
	錢潢	『傷寒溯源集』
	沈金鰲	『傷寒論綱目』

표 2. 『傷寒論』의 註釋書

마지막으로 기타 醫書로써 검토한 서적은 아래와 같다.

時代	著者	書籍
唐	王燾	『外臺秘要』
明	王履	『醫經溯回集』
	李梃	『醫學入門』
朝鮮	許浚	『東醫寶鑑』

표 3. 기타 醫書

### III. 本 論

陰陽病機에 대해 『難經·五十八難』<sup>6)</sup>과 『傷寒論·傷寒序例』<sup>7)</sup>는 陽虛陰盛과 陽盛陰虛의 두 가지로 언급한데 반해, 『素問調經論』<sup>8)</sup>은 陽虛·陰虛·陽盛·陰盛의 네 가지로 논하고 있다.

『難經』 및 「傷寒序例」와 『素問』의 해당 문장에서 비록 陽虛·陰虛·陽盛·陰盛 등의 글자는 같지만 문장 조합 형태가 서로 다르기에, 해당 서적마다 陽虛·陰虛·陽盛·陰盛 등이 가리키는 바가 서로 같은지 아니면 서로 다르지 정확하지 않다.

먼저 『難經』의 ‘陽虛陰盛’과 ‘陽盛陰虛’의 의미에 대한 여러 관점을 분류·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 1. ‘陽虛·陰盛’과 ‘陽盛·陰虛’의 의미

‘陽虛·陰盛’과 ‘陽盛·陰虛’의 의미에 대해 黃元御<sup>9)</sup>, 黃維三<sup>10)</sup>, 許叔微<sup>11)12)13)</sup>, 王肯堂<sup>14)</sup>, 柯琴<sup>15)</sup>, 尤在涇<sup>16)</sup>, 錢潢<sup>17)</sup> 등은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

6) 滑壽 著.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編譯. 難經本義.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257. “陽虛陰盛, 汗出而愈, 下之即死; 陽盛陰虛, 汗出而死, 下之而愈.”

7) 成無己 著. 傷寒論注(『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103-104. “夫陽盛陰虛, 汗之則死, 下之則愈; 陽虛陰盛, 汗之則愈, 下之則死. …… 況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以亡.”

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18.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

9)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難經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09. “陽虛陰盛, 下則亡陽, 故可汗愈; 陽盛陰虛, 汗則亡陰, 故可下愈.”

10) 黃維三. 難經發揮. 臺中. 中國醫藥學院出版社. 1990.

11)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九十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5.

12)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發微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7.

13)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7-8.

14) 王肯堂. 王肯堂醫學全書·證治準繩.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780-781.

1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95.

16) 尤在涇. 尤在涇醫學全書·傷寒貫珠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8.

17) 錢潢. 傷寒溯源集·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기에 이들의 견해는 다르지 않았다.

『難經』 및 「傷寒序例」의 여러 註釋家와 기타 醫家 중 '陽虛·陰盛'과 '陽盛·陰虛'에 대한 관점을 아래와 같이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가. 錯簡 또는 傳寫의 誤謬

『傷寒微旨』에서 韓祗和는 “楊氏(楊玄操를 가리킨다.18)가 『黃帝八十一難經註』(현재는 亡失됨)에서 陰陽 두 글자가 顛倒되었다고 판단하여 해석한 것이 큰 오류이다.”19)라고 지적하였다.

『難經集注』에서 “虞氏(虞庶를 가리킨다.20)는 錯簡이 있거나 傳寫의 誤謬가 있다.”21)고 하였다.

이로써 楊玄操와 虞庶는 '陽虛·陰盛'과 '陽盛·陰虛'에 대해 錯簡 또는 傳寫의 誤謬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즉, '陽虛 陰盛'을 '陰虛 陽盛'으로, '陽盛 陰虛'를 '陰盛 陽虛'로 고쳐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고치면 “陰虛 陽盛에 發汗이 마땅하고 陰盛 陽虛에 攻下가 마땅하다.”는 표현이 된다.

그러나 여전히 '陰虛 陽盛', '陰盛 陽虛'의 陰·陽이 가리키는 바가 각각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나. 陽·陰을 각각 脈의 寸·尺으로 해석

『難經集注』에서 丁氏(丁德用을 가리킨다.22)는 “그 陰陽盛虛는 脈의 浮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23)고 하였다.

또 韓祗和는 『傷寒微旨』에서 “『難經』 중의 陰陽 두 글자는 三部脈 중에 寸이 陽이 되고 尺이 陰이 된다는 것이지, 三部脈 중에 浮가 陽이 되고 沈이 陰이 된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24)라고 하였다.

王履는 韓祗和의 이 말에 대해 “『傷寒微旨』에서 陰·陽은 脈의 尺寸을 가리킨 것이므로, 만약 汗證이 이미 갖추어졌더라도 脈이 아직 應하지 않으면 반드시 尺脈의 힘이 寸脈보다 지나친 뒤라야 發汗하고, 下證이 이미 갖추어졌더라도 脈이 아직 應하지 않으면 반드시 寸脈의 힘이 尺脈보다 지나친 뒤라야 攻下한다.”25)고 설명하였다.

陽·陰이 浮·沈의 脈象을 가리킨다고 보는 학설은 일찍이 『難經』 註釋家(丁德用 등)로부터 그다지 지지받지 못하여 폐기되었다.

또한 韓祗和 등은 陽·陰이 脈의 寸·尺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그러나 陽·陰이 浮·沈의 脈象 또는 脈의 寸·尺을 가리킨다는 학설은 예로부터 많은 醫家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陽虛陰盛은 沈脈 또는 尺脈에, 陽盛陰虛는 浮脈에 해당한다면 傷寒의 表病(太陽病)과 裏病(陽明病)의 治法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 다. 陽·陰을 각각 六氣의 陽·陰으로 해석

『難經集注』에서 丁氏(丁德用)는 “그 陰陽盛虛는

18)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4.

19) 韓祗和. 傷寒微旨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6).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47-548. “楊氏曰此說反例, 于義不通, 不可依用. 若反此行之, 大爲順耳. …… 楊氏集難經正文爲汗下之悞, 及言文意反例, 不可依用, 由其不通, 難經中陰陽二字, 迺是三部脈浮沈中, 寸爲陽, 尺爲陰, 非謂三部脈, 浮爲陽, 沈爲陰也, 使後人妄憑注中之說, 誤投汗下若, 以害人命, 皆楊氏爲萬世之罪魁也.”

20)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6.

21) 王九思 等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52. “虞曰 諸經義, 皆不錯此經例義, 必應傳寫誤也. 凡傷寒之病脈浮大而數, 可汗之即愈, 病有表也, 脈沈細而數, 可下之即愈, 病在裏也, 推此行之, 萬無一失.”

22)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4.

23) 王九思 等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51. “丁曰 其陰陽盛虛者. 謂非言脈之浮沈也. 謂寒暑病異燥濕不同. 人之五臟六府有十二經皆受於病, 其手太陽少陰屬火主暄, 手陽明太陰屬金主燥, 手少陽厥陰屬相火主暑, 此是燥暑暄六經以通天氣, 病即不體重惡風而有躁. …… 若以桂枝取汗, 汗出即愈, 脈承氣下之即死. 此是五臟六府配合陰陽大法也. 所以經云陽虛陰盛汗出而愈, 下之而死, 其陽盛陰虛汗出而死, 下之而愈, 此義非反顛倒也.”

24) 韓祗和. 傷寒微旨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6).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47-548. “難經中陰陽二字, 迺是三部脈浮沈中, 寸爲陽, 尺爲陰, 非謂三部脈, 浮爲陽, 沈爲陰也.”

25) 王履. 醫經溯回集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957-958. “『傷寒微旨』曰: 此陰陽, 指脈之尺寸言. 尺脈實大, 寸脈短小, 名陰盛陽虛, 可汗; 寸脈實大, 尺脈短小, 名陽盛陰虛, 可下. 苟汗證已具, 而脈未應, 必待尺脈力過於寸而後行; 下證已具, 而脈未應, 必待寸脈力過於尺而後用.”

脈의 浮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寒暑의 병이 다르고 燥濕이 같지 않음을 말한다. 사람의 五臟六府는 十二經이 있어서 모두 병을 받는다. 그 手太陽少陰은 火에 속하여 暄을 主하고, 手陽明太陰은 金에 속하여 燥를 主하고, 手少陽厥陰은 相火에 속하여 暑를 主하니, 이는 燥·暑·暄이 六經을 통해 天氣와 통하는 것이다. 병들면 곧 體重 惡風하지 않고 躁動하기만 한다. …… 만약 桂枝湯으로 發汗하여 땀이 나면 곧장 낫지만 承氣湯을 복용하여 攻下하면 곧장 죽는다. 이는 五臟六府가 陰陽과 配合되는 大法이다. 따라서 『難經』에서 ‘陽虛陰盛, 汗出而愈, 下之而死, 陽盛陰虛, 汗出而死, 下之而愈.’라고 한 것이니, 이 글의 뜻이 뒤집혀서 잘못된 것이 아니다.”<sup>26)</sup>고 하였다.

丁德用은 『難經集注』에서 韓祗和와 마찬가지로 錯簡 또는 傳寫의 誤謬說에 반대하였으며, 陽虛 陰盛을 ‘寒(水)·濕(濕)·風(木)’, 즉 陰에 해당하는 六氣病으로, 陽盛 陰虛를 ‘暄(火)·燥(金)·暑(相火)’, 즉 陽에 해당하는 六氣病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 라. 陽·陰을 각각 表·裏로, 盛·虛를 각각 不病(또는 正氣偏盛)·病(邪氣所湊)으로 해석

王燾는 “表가 和하나 裏가 병들었거든 攻下하면 낫거니와 發汗하면 죽으며, 裏가 和하나 表가 병들었거든 發汗하면 낫거니와 攻下하면 죽는다.”<sup>27)</sup>고 하였는데, 그는 陽·陰을 각각 表·裏로, 盛·虛를 각각 和·病으로 해석한 것이다.

滑壽는 『難經本義』에서 『外臺秘要』를 인용하여, “병을 받는 곳이 ‘虛’가 되고 병을 받지 않는 곳이 ‘盛’이 된다. 오직 그 虛하기 때문에 邪氣가 모이고,

오직 盛하기 때문에 邪氣가 들어오지 않으니 …… 이 陰陽이라는 글자는 表裏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sup>28)</sup>라고 하였다.

滑壽는 『難經』의 ‘虛’를 ‘受病’으로 보고, ‘盛’을 『外臺秘要』의 관점에 따라 ‘不病’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王燾, 滑壽는 陽虛 陰盛을 ‘表病·裏不病’으로, 陽盛 陰虛를 ‘表不病·裏病’으로 보았는데, 이런 해석은 『素問評熱病論』의 “邪之所湊, 其氣必虛”<sup>29)</sup>와 관점이 같다.

劉完素는 “또 예를 들어 『內經』에서 ‘陽勝則熱, 陰勝則寒.’이라고 하였다. …… 이는 表裏의 陰陽과 正氣의 虛實을 말한 것으로, 正氣가 이긴 것을 병들지 않았다고 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병들었다고 말한 것이다. …… 그러나 病이 이겨서 裏에 있으면 陽勝陰虛가 되니 病에 마땅히 發熱하므로 發熱로 病熱이 裏에 있다. 陽勝陰虛에 攻下하면 낫거니와 發汗하면 곧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다. 表熱 裏和하면 병이 마땅히 惡寒하니 陰勝陽虛가 되니 發汗하면 낫거니와 攻下하면 곧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다.”<sup>30)</sup>라고 하였다.

이로써 劉完素는 陽·陰에 대해서 表·裏로 보았고, 徐大椿의 평가처럼<sup>31)</sup> 盛·虛에 대해서 滑壽와 마찬가지로 병들지 않은 것을 ‘盛’이라 하고 병든 것을 ‘虛’라고 보았다.

滕萬卿은 “이른바 陽虛·陰盛은 邪가 表에 있는

26) 王九思等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51. “丁曰 其陰陽虛者. 謂非言脈之浮沈也. 謂寒暑病異燥濕不同. 人之五臟六府有十二經皆受於病. 其手太陽少陰屬火主暄. 手陽明太陰屬金主燥. 手少陽厥陰屬相火主暑. 此是燥暑暄六經以通天氣. 病即不體重惡風而有躁. …… 若以桂枝取汗. 汗出即愈. 服承氣下之即死. 此是五臟六府配合陰陽大法也. 所以經云陽虛陰盛汗出而愈. 下之而死. 其陽盛陰虛汗出而死. 下之而愈. 此義非反顛倒也.”

27)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8. “又曰: 夫表和裏病(一作陽虛陰盛), 下之而愈. 汗之則死. 裏和表病(一作陽虛陰盛), 汗之而愈. 下之則死.”

28) 滑壽著.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編譯. 難經本義.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257. “受病爲虛, 不受病者爲盛. 唯其虛也, 是以邪湊之, 唯其盛也, 是以邪不入 …… 此陰陽字, 指表裏言之.”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4.

30) 陳柱杓註釋. 東醫文獻研究室再編輯. 金元四大家醫學全書傷寒直格論方.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29. “且如經言: 陽勝則熱, 陰勝則寒. …… 此言表裏之陰陽正氣之虛實, 言正氣勝者爲不病, 而不勝者爲病也. …… 然病勝在裏, 爲陽勝陰虛, 病當發熱, 故發熱爲病熱在裏. 陽勝陰虛, 下之則愈. 汗之即死者是也. 表熱裏和, 則病當惡寒, 爲陰勝陽虛, 汗之則愈. 下之即死者是也.”

31)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38. “外臺秘要, 及劉河間 傷寒直格, 俱以不病者爲盛; 病者爲虛.”

것을 말하고 陽盛·陰虛는 邪가 裏에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常例로써 미루면 그 뜻이 통하기 어려운데 무엇 때문인가? 陽虛·陰虛는 모두 邪가 모여드는 곳을 가리켜 말한 것이고, 그 陰盛·陽盛은 正氣가 偏盛함을 말한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즉 두 ‘虛’字는 正氣가 바야흐로 虛함을 말하고, 두 ‘盛’字는 經氣가 偏盛함을 말한다. …… ‘盛’은 진실로 邪가 없는 곳이다. 그러나 經脈의 ‘和’와 비교하면 ‘有餘’에 해당한다. 따라서 扁鵲이 ‘和’라고 말하지 않고 ‘盛’이라고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經』에 이르되, ‘邪氣가 盛하면 곧 實이 되고 精氣가 빼앗기면 곧 虛가 된다.’고 하였으니, 이 또한 한 가지 뜻(陰·陽을 表·裏의 한 가지로 해석한 것)이다. 王氏(王履를 가리킨다.)가 陽虛·陰虛를 陽經과 陰經의 虛라고 여기고 陽盛·陰盛을 陽熱과 陰寒의 邪라고 여겨서 陰陽의 글자를 두 가지 뜻으로 나누었으니 문자의 用例와 상반되는 듯하다.”<sup>32)</sup>고 하였다.

주목할 점은, 滕萬卿은 ‘盛’에 대해 王燾가 ‘和’로 해석하거나 滑壽가 ‘不病’으로 해석한 것과 약간 다르게 보았다.

즉, ‘盛’을 ‘偏盛’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王履의 의견을 일부분 따른 것이다.

王履는 일찍이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건대 陰陽이 사람에게 있어서 고르면 편안하거나 치우치면 병이 된다.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는 것을 고르다고 하고, 지나침과 모자람을 치우친다고 한다. **盛은 지나침이고 虛는 모자람이니 그 어찌 盛을 和라고 하는가!** 따라서 『內經』에 이르되 ‘邪氣가 盛하면 實이고 精氣가 奪하면 虛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陽虛에는 發汗이 마땅하고 陰虛에는 攻下가 마땅하다고 말한 것은 邪氣를 빼놓고 도리어 正氣만을 가리킨 것이니 그 말이 이치에 어긋지 않는가!”<sup>33)</sup>라고 하였

32) 윤창열,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807. “所謂陽虛陰盛, 言邪在表; 陽盛陰虛, 言邪在裏. 然以常例推之, 其義難通, 何者? 陽虛陰虛, 共指邪湊之地而言, 其謂陰盛陽盛, 言正氣偏盛. 由是觀之, 卽兩虛字, 謂正氣方虛, 兩盛字, 謂經氣偏盛. …… 盛因爲無邪處, 然比諸經之和卽有餘, 故扁鵲不言和而言盛, 可以見已. 經云 邪氣盛卽實, 精氣奪卽虛, 此亦一義. 王氏以陽虛陰虛, 爲陽經陰經之虛; 以陽盛陰盛, 爲陽熱陰寒之邪. 陰陽字分爲二義, 似反字例.”

다.

그러나 陽盛·陰盛의 陽·陰에 대해, 表·裏의 正氣로 해석한 滕萬卿과 달리, 王履는 각각 熱邪·寒邪로 해석하였다.

결론적으로, 滕萬卿은 王履와 달리 陽·陰을 일관되게 表·裏로 보아서, 陽虛·陰虛를 邪氣所湊로, 陰盛·陽盛을 正氣偏盛으로 보아 陽虛·陰虛를 ‘表邪·陰經偏盛’으로, 陽盛·陰虛를 ‘陽經偏盛·裏邪’로 해석하였다.

本間祥白은 『難經之研究』에서 “이 중 陽虛陰盛의 陰陽은 결코 앞 문장의 診脈 上 尺寸의 陰陽이 아니라, 이에 신체의 表裏를 가리키는 것으로 즉 病位의 깊이를 말한 것이다. 이른바 ‘陽虛’는 곧 體表部에 邪氣가 있어서 正氣가 虛弱하지만 陰部는 邪氣가 없어서 正氣가 實盛하다는 뜻이다. …… 이 중 이른바 ‘陽盛’은 신체의 表位에는 병이 없어서 正氣가 충실하지만 陰, 즉 裏의 부위에는 邪氣가 있어서 正氣가 虛한 病症이 있는 것이다. 이 때 裏位의 邪氣를 몰아내기 위해 下劑를 사용해야 하지 發汗하는 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sup>34)</sup>고 하였다.

즉 本間祥白은 滕萬卿처럼 陽·陰을 일관되게 表·裏로 보아 陽虛 陰盛을 ‘表의 正氣虛(有邪)·裏의 正氣實(無邪)’으로, 陽盛 陰虛를 ‘表의 正氣實(無邪), 裏의 正氣虛(有邪)’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해석은 『素問調經論』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에서 일반적으로

33) 王履. 醫經溯回集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957-958. “竊意陰陽之在人, 均則寧, 偏則病. 無過不及之謂均; 過與不及之謂偏. 盛則過矣, 虛則不及矣. 其可以盛爲和乎? 故『內經』云: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且謂陽虛當汗, 陰虛當下. 乃遣邪氣而反指正氣, 爲言得無晦乎?”

34) 本間祥白 著. 難經之研究. 發行地未詳. 正言出版社. 1965. pp.345-348. “在傷寒病中, 有些病症可給與如麻黃湯之類, 使之發汗而治癒者, 有給與下劑而卻使病狀惡化者; 又有相反的給與發汗劑而病狀惡化, 給與如承氣湯之類之劑而治癒者, 這是爲什麼呢? 這裏的陽虛陰盛的陰陽, 並非前文診脈上 尺寸的陰陽, 乃指身體的表裏, 卽病位的深度而言, 所謂陽虛, 就是體表部因有邪氣而正氣虛弱, 陰部則無邪氣而正氣實盛的意思. …… 這裏所謂陽盛, 是爲身體的表位無病而正氣充實, 陰卽裏的部位有邪氣而正氣虛的病症. 此時爲了驅除裏位的邪氣應該使用下劑, 不可使用發汗之劑.”

陽虛·陰虛는 正氣의 虛弱을 가리키고 陽盛·陰盛은 邪氣의 實盛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sup>35)</sup>과 반대된다.

이처럼 陽·陰을 각각 表·裏로, 盛·虛를 不病(또는 正氣偏盛)·病(邪氣所湊)으로 해석한 醫家는 王燾, 滑壽, 張世賢<sup>36)</sup>, 劉完素, 李梴<sup>37)</sup>, 許浚<sup>38)</sup> 滕萬卿, 本間祥白 등을 꼽을 수 있다.

#### 마. 陽虛·陰虛를 각각 正氣虛弱(表裏)으로, 陽盛·陰盛은 邪氣實盛(熱邪寒邪)으로 해석

이는 『素問通評虛實論』의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sup>39)</sup>를 근거로 陽虛·陰虛는 正氣의 虛弱으로, 陽盛·陰盛은 邪氣의 實盛으로 보아 『難經』 및 『傷寒序例』를 해석하는 것이다.

이 때, 『難經』의 陽虛·陰虛의 陽·陰은 邪氣가 있는 위치, 즉 表·裏로 해석하지만, 陽盛·陰盛의 陽·陰은 熱邪·寒邪로 해석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 방법은 盛·虛에 대해 각각 ‘不病(또는 正氣偏盛)’·‘病(邪氣所湊)’으로 해석한 王燾, 滑壽 등의 관점과 비교하면 正·邪의 위치가 반대된다.

이런 해석은 『素問通評虛實論』의 관점을 잘 반영할 수 있지만, 『素問調經論』이나 『評熱病論』의 “邪氣所湊, 其氣必虛”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滕萬卿의 지적처럼<sup>40)</sup> ‘陽虛陰盛’ 또는 ‘陽盛陰虛’의 한 구절 내에서 陽·陰을 表·裏라는 한 가지 기준 또는 寒·熱이라는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으므로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석 방법은 『難經』 註釋家, 『傷寒論』 註釋家 및 기타 醫家들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다.

이 해석 방법을 좀 더 細分하면 아래와 같이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陽虛)陰盛을 ‘寒邪’로, 陽盛(陰虛)을 ‘熱邪’로 해석

王履(王安道)는 『醫經溯回集』에서 “무릇 寒邪가 밖에서 침입하는 것이 陰盛 陽虛가 아니겠는가! 熱邪가 안에서熾盛하는 것이 陽盛 陰虛가 아니겠는가! 發汗과 攻下가 만일 잘못되면 生死가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진다.”<sup>41)</sup>고 하였다.

또한 ‘盛’의 의미에 대해 “盛은 지나침이고 虛는 모자람이니 그 어찌 盛을 和라고 하는가!”<sup>42)</sup>라고 하였으니, 王履는 『難經』의 ‘盛’을 ‘和’로 해석한 『外臺秘要』에 반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滕萬卿은 “王氏(王履를 가리킨다.)가 陽虛·陰虛를 陽經과 陰經의 虛라고 여기고 陽盛·陰盛을 陽熱과 陰寒의 邪라고 여겨서……”<sup>43)</sup>라고 하였고, 『韓中醫學各家學說』에서 “陰陽의 盛은 寒熱病邪를 지적하고 陰陽之虛는 表裏精氣를 지적하였는데 …”<sup>44)</sup>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王履가 (陽虛)陰盛을 ‘寒邪’로,

35) 素問研究集成 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제7권). 익산. 素問研究集成 刊行委員會. 2001. pp.67-71.

36)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南. 大學書局. 1977. p.2(卷四). “陽虛陰盛, 表病裏和也, 表病宜汗, 故汗出而病愈, 錯下之即死也; 陰虛陽盛, 裏病表和也, 裏病宜下, 故下之而病愈, 錯汗之即死也. 如此死者, 粗工不明表裏而醫殺之耳.”

37)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08. “發表攻裏溫裏之方 扶陽助陰抑陰之義(此陰陽, 指表裏, 言病者爲虛, 不病者爲實. 表病裏和, 則邪出於外, 而爲陽虛陰盛, 故發表不遠熱, 而用辛甘之劑, 所以扶陽也. 裏病表和, 則邪入於內, 而爲陰虛陽盛, 故攻裏不遠寒, 而用酸苦之藥, 所以扶陰也. 若陰經自受寒邪, 則是藏病. 投陰陽氣將脫, 急宜辛熱回陽抑陰, 故曰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乃亡, 實實虛虛, 損不足, 而益有餘, 醫殺之耳. 此汗下之杼機)”

38) 許浚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127. “陽盛陰虛, 下之則愈, 汗之則死; 陰盛陽虛, 汗之則愈, 下之則死, 此陰陽, 指表裏而言之也. 『難經』”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7.

40)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807. “王氏以陽虛陰虛, 爲陽經陰經之虛; 以陽盛陰盛, 爲陽熱陰寒之邪. 陰陽字分爲二義, 似反字例.”

41) 王履. 醫經溯回集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957-958. “夫寒邪外客, 非陰盛而陽虛乎? 熱邪內熾, 非陽盛而陰虛乎? 汗下一差, 生死反掌.”

42) 王履. 醫經溯回集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957-958. “盛則過矣, 虛則不及矣. 其可以盛爲和乎?”

43)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807. “王氏以陽虛陰虛, 爲陽經陰經之虛; 以陽盛陰盛, 爲陽熱陰寒之邪……”

44) 윤창렬 편역.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390.

陽虛(陰虛)을 ‘熱邪’로 해석하였으나 陽虛 · 陰虛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徐大椿은 “오직 王安道の 『醫經溯洄集』에 곧 寒邪가 밖에 있음은 陰盛이니 發汗할 수 있고, 熱邪가 內熾함은 陽盛이니 攻下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 학설이 가장 폐단이 없다. 만약 병들지 않은 것이 實이고 병든 것이 虛라는 학설은 表病裏和와 裏病表和의 학설과 서로 비슷하지만 虛 · 實 두 글자는 그 뜻이 끝내 알맞지 않다.”<sup>45)</sup>고 하였다.

이로써 徐大椿은 滑壽를 비롯한 『難經』註釋家들이 『外臺秘要』와 『素問評熱病論』의 “邪氣所湊, 其氣必虛”를 따라 ‘盛’은 ‘和(즉 不病)’로, ‘虛’는 ‘病(邪)’으로 해석한 것에 반대하고, 王履가 『素問通評虛實論』의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에 따라 盛 · 虛를 해석한 것에 대체로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徐大椿 역시 陽虛 · 陰虛에 대해서는 王履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王履, 徐大椿은 陽虛陰盛, 陽盛陰虛 모두 傷寒病에 해당하므로 각각 傷寒病 表證의 發汗과 裏證의 攻下の 病機로 여겨 陰盛 · 陽盛을 각각 寒邪 · 熱邪로 해석하였지만, 陽虛 · 陰虛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관점은 沈金鰲<sup>46)</sup>, 葉霖<sup>47)</sup>, 蔡陸仙<sup>48)</sup>, 王

洪圖<sup>49)</sup>, 加藤宗博<sup>50)</sup>, 唐湘清<sup>51)</sup> 등이 따랐다.

## 2) 陽虛(陰盛)를 ‘表陽虛 · 表邪實’로, (陽盛)陰虛를 ‘裏邪實 · 裏陰虛’로 해석

『古本難經關注』에서 丁錦은 “陽虛는 邪가 表에서 實하나 表의 陽氣가 虛한 것이고, 陰虛는 邪가 裏에서 實하나 裏의 陰氣가 虛한 것이니 이는 즉 邪氣는 實하고 正氣는 虛한 것이다. 表에 있으면 發汗하고 裏에 있으면 攻下하니 이것이 바른 治法이다.”<sup>52)</sup>라고 하였다.

즉, 丁錦은 陽虛陰盛, 陽盛陰虛 모두 傷寒病에 해당하므로 각각 傷寒病 表證의 發汗과 裏證의 攻下の

下之而愈汗出即死者, 其故何歟? 蓋寒邪外襲爲陰盛, 可汗而不可下; 熱即內熾爲陽盛, 可下而不可汗, 王叔和傷寒例曰桂枝下咽, 陽盛即斃; 承氣入胃, 陰虛以亡, 卽此義也.”

48)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807.

49) 王洪圖, 煙建華 編. 難經. 北京, 春秋出版社. 1988. p.85. “問: 治療傷寒病, 有的使用發汗法, 病人出了汗就會痊愈, 若使用瀉下法就會死亡; 有的使用發汗法, 病人汗出反致死亡, 而用瀉下法却能治愈, 這是什麼道理呢? 答: 患者陽虛陰盛, 用發汗法, 汗出邪從表去則痊愈; 若用瀉下法, 就會使表邪內攻, 造成死亡. 患者陽盛陰虛, 若用發汗法, 汗出會使津液枯竭而死亡; 用瀉下法, 則使裏熱之邪, 雖大便泄出, 所以能痊愈.”

50) 加藤宗博. 虛經衷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187-188. “滑氏曰 受病爲虛; 不受病者爲盛. 唯其虛也, 是以邪湊之; 唯其盛也, 是以邪不入, 卽外臺所謂表病裏和, 裏病表和之謂, 指傷寒傳變者而言之也. 表病裏和, 汗之可也, 而反下之, 表邪不除, 裏氣復奪矣; 裏病表和, 下之可也, 而反汗之, 裏邪不退, 表氣復奪矣, 故云死. 所以然者, 汗能亡陽, 下能損陰也. 此陰陽字, 指表裏言之. 經曰誅伐無過, 命曰大惑, 此之謂歟! (搏) 按: 王安道曰 寒邪外客, 非陰盛而陽虛乎! 熱邪內熾, 非陽盛而陰虛乎! 仲景曰 桂枝下咽, 陽盛即斃; 承氣入胃, 陰虛乃亡, 可不謹且辨乎!”

51) 唐湘清 著. 難經今釋. 北京, 國立編譯館. 1988. p.221. “本篇中段所謂‘傷寒有汗出而愈, 下之而死者; 有汗出而死, 下之而愈者.’ 這傷寒是泛指廣義的外感性發熱而言. 其中陽虛陰盛與陽盛陰虛的意義, 各註的解釋不一. 徐靈胎認爲王安道溯洄集以寒邪在外, 爲陰虛可汗, 熱邪內熾, 爲陽盛可下, 此說最爲無弊. 丹波元胤的難經疏證, 葉霖的難經正義, 亦都解爲寒邪外襲爲陰盛, 可汗而不可下; 熱邪內熾爲陽盛, 可下而不可汗. 王叔和的傷寒序例中說‘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虛以亡.’更可說明上述解釋的正確.”

52) 윤창렬, 김용진 편저.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800. “陽虛者, 邪實於表而表之陽氣虛也; 陰虛者, 邪實於裏而裏之陰氣虛也, 此卽邪實正虛也. 在表汗, 在裏下, 此正法也.”

45)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38. “惟王安道溯洄集, 卽以寒邪在外, 爲陰虛可汗; 熱邪內熾, 爲陽盛可下, 此說最爲無弊, 若不病者實, 病者爲虛之說, 與表病裏和, 裏病表和之說, 相近. 但虛實二字, 其義終未安也.”

46)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12. “論曰, 陽盛陰虛, 汗之則死, 下之則愈, 陽虛陰盛, 汗之則愈, 下之則死, 又曰, 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虛以亡, 此陰陽乃以寒熱爲言也. 陽盛陰虛, 言內熱有餘而外寒不甚也. 夫邪必入腑, 然後作熱, 熱實於內, 卽陽盛也, 故再用溫熱以汗之, 則死矣. 陽虛陰盛, 言寒邪有餘而鬱熱未深也. 夫邪中於表, 必因風寒, 寒束於外, 卽陰盛也, 故妄用沉寒以下之, 則死矣. 所以陽盛者, 用桂枝則斃, 陰盛者, 用承氣則亡也. 按, 三陽病, 俱有不發熱者, 便是發於陰, 三陰病, 俱有反發熱者, 便是發於陽.”

47)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01. “傷寒, 爲此五病之通稱, 但傷寒有汗出而愈下之即死者, 有

病機로 여겨 陽虛를 表陽虛로, 陰虛를 裏陰虛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陰盛·陽盛의 실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각각 ‘邪實於表’, ‘邪實於裏’로 표현함으로써 ‘陰盛’은 表實으로 여기고 ‘陽盛’은 裏實으로 여겼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陽虛·陰虛의 陽·陰에 대해 王燾, 滑壽 등과 같이 각각 表·裏로 보았지만, ‘虛’와 ‘盛’에 대해 각각 王燾, 滑壽 등이 각각 ‘邪氣가 모이는 곳’과 ‘正氣가 偏盛함’으로 본 것과는 반대로 각각 正氣虛, 邪氣實로 해석하였다.

### 3) 陽虛 陰盛을 ‘陰邪乘表虛’로, 陽盛 陰虛를 ‘陽邪乘虛入腑’로 해석

成無己는 『傷寒論傷寒序例』에서 “表는 陽이고 裏는 陰이다. 陰虛한 경우는 陽이 반드시 몰려드니 陽盛의 邪가 그 裏虛를 틈타서 六腑로 들어간 것이 陽盛陰虛이다. …… 陰脈이 不足하면 陽이 가서 따르고, 陽脈이 不足하면 陰이 가서 틈탄다. 陰邪가 그 表虛를 틈타서 榮衛의 가운데에 침입한 것이 陽盛陰虛이다.”<sup>53)</sup>라고 하였다.

즉, 成無己는 陽虛 陰盛을 ‘陰邪乘表虛’로, 陽盛 陰虛를 ‘陽邪乘虛入腑’로 해석하였다.

王履 등이 陽虛·陰虛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못한 것에 비해, 成無己는 진일보하여 陽虛를 ‘表虛’로, 陰虛를 ‘裏虛’로 해석하였다.

陶華<sup>54)</sup>, 張璐<sup>55)</sup>, 唐湘清<sup>56)</sup>, 凌耀星<sup>57)</sup>, 南京中醫

學院의 『難經校釋』<sup>58)</sup> 등이 成無己의 관점을 따랐다.

陰氣既虛, 即譴妄狂躁, 煩渴惡熱之病而作也. 當此之時, 宜用承氣湯苦寒之劑, 扶陰抑陽而泄去熱氣, 陽邪即退, 胃中真陰來復, 裏氣和平而愈. 『內經』所謂酸苦湧泄爲陰者是也. 不知用此, 乃以桂枝辛熱之藥助邪伐正, 安有不斃者乎? 所以仲景云: 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乃亡. 良以此夫. 嗚呼, 此論誠爲傷寒汗下之樞機乎? 俗醫不能達此爲妙, 昧於陰陽虛盛之道, 悖逆此理而不殺人也, 幾希. 經云發表不遠熱, 攻裏不遠寒, 豈虛語哉!”

55) 張璐. 傷寒續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637. “夫陽盛陰虛, 汗之則死, 下之則愈, 陽虛陰盛, 汗之則愈, 下之則死. 陽乘陰位, 則爲陽盛陰虛, 故可下而不可汗, 陰乘陽位, 則爲陽虛陰盛, 故可汗而不可下, 即表病裏和裏病表和之謂也, 蓋表實裏虛, 而邪入腑. 汗之則死, 下之則愈. 裏實表虛, 而邪鬱於經. 下之則死. 汗之則愈. 夫如是則神丹安可以誤發, 甘遂何以妄攻, 虛盛之治相背千里, 吉凶之機, 應若影響, 豈容易哉! 況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以亡, 死生之要, 在乎須臾, 視身之盡, 不暇計日, 此陰陽虛實之交錯, 其候至微, 發汗吐下之相反, 其禍至速, 而醫術淺狹, 懵然不知病源, 爲治乃誤, 使病者殞歿, 自謂其分至仁者, 鑒此, 豈不痛歟, 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以亡, 以概言汗下關係非細, 不過借此爲例, 非誤用二湯, 必致不救也.”

56) 唐湘清 著. 難經今釋. 北京. 國立編譯館. 1988. p.221. “本篇中段所謂‘傷寒有汗出而愈, 下之而死者; 有汗出而死, 下之而愈者.’ 這傷寒是泛指廣義的外感性發熱而言. 其中陽虛陰盛與陽盛陰虛的意義, 各註的解釋不一. 徐靈胎認爲王安石溯洄集以寒邪在外, 爲陰盛可汗, 熱邪內熾, 爲陽盛可下, 此說最爲無弊. 丹波元胤的難經疏證, 葉霖的難經正義, 亦都解爲寒邪外襲爲陰盛, 可汗而不可下; 熱邪內熾爲陽盛, 可下而不可汗. 王叔和的傷寒序例中說‘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以亡.’ 更可說明上述解釋的正確.”

57)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05. “對本難答語, 部分注家提出疑問. 如『集注』楊曰‘此說反例, 於義不通, 不可依用也. 若反此行之, 乃爲順爾.’ 虞氏曰‘此經例義, 必應傳寫誤也.’ 楊虞兩氏的意見, 主要是對原文‘陰·陽’字義未作進一步分析的緣故. 『素問·通評虛實論』云‘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本難所述邪氣果有寒熱陰陽之分, 人的精氣, 亦有表裏陰陽之別. 外傷於寒邪, 寒爲陰邪而陰盛, 寒性收引, 使陽氣遏抑, 不能敷布於表, 則表陽不足, 是爲陰盛陽虛. 汗之, 使腠理開發, 衛陽布達於表, 陰寒之邪消散, 故汗之而愈. 若反下之, 則陽氣不達, 寒邪不散, 反傷其內, 故死. 另一種情況, 如果寒邪化熱, 熱邪內結, 熱爲陽邪, 是爲陽盛. 陽熱熾盛, 則陰津受灼, 此爲陽盛陰虛, 下之則內結之邪熱, 得以蕩滌, 便可保全陰津, 故下之而愈. 仲景急下存陰, 或鑒於此, 若反汗之, 則內結之邪熱, 依然存在, 可進一步傷陰, 而汗爲津液所化, 不應汗而汗之, 徒使陰津耗傷, 病進而死. 『傷寒例』引本難文, 竝續之曰, ‘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則亡.’ 進一步闡明了‘汗出而死’和‘下之即死’之理.”

58)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著.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30-131. “陽虛陰盛, 汗出而愈, 下之即死; 陰盛, 指寒邪在表. 寒傷陽, 故陽虛. 表實證宜汗忌下,

53) 成無己 著. 傷寒論注:傷寒序例(『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104. “表爲陽, 裏爲陰, 陰虛者, 陽必湊之, 陽盛之邪, 乘其裏虛, 而入於腑者, 爲陽盛陰虛也. …… 陰脈不足, 陽往從之, 陽脈不足, 陰往乘之, 陰邪乘其表虛, 客於榮衛之中者, 爲陽虛陰盛也.”

54)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89. “夫傷寒發表攻裏之藥, 寒熱殊途, 用之一差, 死生反掌. 所以越人, 仲景深致意於其間也. 『難經』云: 傷寒陽虛陰虛, 汗之則愈, 下之則死. 陽盛陰虛, 汗之則死, 下之則愈. 且寒邪之傷人也, 有淺深焉. 淺者, 汗之; 深者, 下之. 此古今不易之定法也. 方其風寒初客皮毛之間, 陰氣乃盛, 閉塞腠理, 身中陽氣已虛, 不能禦衛, 遂有惡風惡寒之證見焉. 當此之時, 只宜桂枝湯辛甘溫之藥, 助陽抑陰而發之. 陰邪既散, 表氣沖和而愈. 經云辛甘發散爲陽者是也. 不知用此而反以承氣湯苦寒之藥下之, 表裏俱傷, 不亡何待? 表邪既罷, 寒作爲熱, 陽陷入深而盛於裏, 則津液消耗, 腸胃燥澀, 而腑之真陰虛矣.

#### 4) 陽虛 陰盛을 ‘表陽不足·寒邪外襲’으로, 陽盛 陰虛를 ‘陽熱熾盛·陰津受灼’으로 해석

凌耀星은 『難經校注』에서 “本難에서 서술한 것은 邪氣에는 寒熱陰陽의 구분이 있고, 사람의 精氣도 表裏陰陽의 구별이 있다. 밖으로 寒邪에 傷하면, 寒은 陰邪이므로 陰盛하게 된다. 寒性은 收引하니 陽氣로 하여금 遏抑하게 하여 능히 表에 잘 펼치지 않게 되면 表陽이 不足하게 된다. 이것이 陰盛陽虛이다. …… 이와 별도로, 만약 寒邪가 熱로 변화하여 熱邪가 안에서 맺히면, 熱은 陽邪이므로 이는 陽盛이 된다. 陽熱이 熾盛하면 陰津이 태워지니 이것이 陽盛陰虛이다.”<sup>59)</sup>라고 하였다.

즉 凌耀星은 『素問·通評虛實論』의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에 근거하여 陽虛·陰虛의 虛는 正氣의 부족을 의미하고 陽·陰은 각각 表·裏를 가리키므로, 결국 陽虛·陰虛는 각각 表陽虛·裏陰(즉 陰津)虛로 해석하였다. 또 陽盛·陰盛의 ‘盛’은 邪氣의 實盛을 의미하고, 陽·陰은 각각 熱·寒을 가리키므로 결국 陽盛·陰盛은 각각 熱邪, 寒邪로 해석하였다.

李梴은 『醫學入門·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에서 “正氣가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 陽이 表가 되고 陰이 裏가 된다는 것은 上古의 名言이며 邪氣가 사람을 해친다는 점에서 表가 陰이 되고 裏가 陽이 된다는 것은 仲景의 妙訣이다. …… 무릇 實이라고 말한 것은 모두 邪氣를 가리키고 무릇 虛라고 말한 것은 모두 正氣를 가리킨다.”<sup>60)</sup>고 하였다.

故汗出而愈, 下之即死. 陽盛陰虛, 汗出而死, 下之而愈; 陽盛, 指熱結在裏. 熱傷陰, 故陰虛. 裏實證宜下忌汗, 故汗出而死, 下之而愈. 其次, 提出了傷寒治法中汗, 下兩法的宜忌問題. 這就是表實證宜用汗法以發其汗, 使邪從汗解; 如果誤用下法, 則可到致裏虛邪陷, 造成不良後果. 反之, 裏實證宜用下法以瀉熱結, 使邪從便泄; 如果誤用汗法, 則可到致陰液耗竭, 也會造成不良後果.”

59)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05. “本難所述邪氣有寒熱陰陽之分, 人的精氣, 亦有表裏陰陽之別. 外傷於寒邪, 寒爲陰邪而陰盛, 寒性收引, 使陽氣遏抑, 不能敷布於表, 則表陽不足, 是爲陰盛陽虛. …… 另一種情況, 如果寒邪化熱, 熱邪內結, 熱爲陽邪, 是爲陽盛. 陽熱熾盛, 則陰津受灼, 此爲陽盛陰虛.”

60)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380. “正氣在人, 陽爲表而陰爲裏, 上古名言; 邪氣害人, 表爲陰而裏爲陽, 仲景妙訣. …… 凡言實者, 皆指邪氣. 凡言虛者, 皆指正

氣.”  
李梴의 이러한 관점은 凌耀星이 『素問·通評虛實論』에 근거한 해석과 동일한데, 李梴의 이 말로 미루어 보면 ‘陽虛陰盛’의 陽虛는 表虛로, 陰盛은 寒邪로 보았고 ‘陽盛陰虛’의 陽盛은 熱邪로, 陰虛는 裏虛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李梴은 또한 陽·陰을 각각 表·裏로, 盛·虛를 각각 不病(또는 正氣偏盛)·病(邪氣所湊)으로 해석한 王燾, 滑壽 등의 견해를 따르기도 했다.

이와 같이 凌耀星의 해석은 滑壽를 비롯한 『難經』註釋家들이 盛을 ‘不病(和 또는 正氣偏盛)’으로, 虛를 ‘病’으로 해석한 것과는 서로 반대가 된다.

또한 陽·陰에 대해 『難經』의 다른 註釋家들이 表·裏의 한 가지 기준으로 해석한 데 반해, 凌耀星은 각각 表(陽虛)·裏(陰虛)와 熱(陽盛)·寒(陰盛)의 두 가지 기준으로 해석했다.

#### 5) 陽虛 陰盛을 ‘太陽表實證(表寒)’으로, 陽盛 陰虛를 ‘陽明腑實證(裏熱)’으로 해석

南京中醫學院은 『難經譯釋』에서 “여기에서의 ‘陽虛陰盛’은 太陽表實證을 가리키니 邪가 表에 있으므로 發汗이 마땅하기를 도리어 攻下하여 裏氣로 하여금 虛하게 하여 邪가 빠지므로 豫後가 不良하다. ‘陽盛陰虛’는 陽明腑實證 一種의 疾患을 가리키니 邪가 裏에 있으므로 급히 攻下함이 마땅하기를 도리어 發汗하여 그 津液을 고갈시키므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sup>61)</sup>고 하였다.

즉, 南京中醫學院은 陽虛 陰盛을 ‘太陽表實證(表寒)’으로, 陽盛 陰虛를 ‘陽明腑實證(裏熱)’으로 歸結함으로써 『難經』과 ‘傷寒序例’의 관점을 서로 일치시켰는데, 丹波元胤<sup>62)</sup>, 唐湘淸<sup>63)</sup> 등의 의견이 이 해

氣.”

61)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者. 難經譯釋. 臺中. 昭人出版社. 1987. p.199. “這裏的‘陽虛陰盛’是指太陽表實證, 邪在表, 故宜發汗, 而反下之, 使裏氣虛而邪陷, 所以豫後不良. ‘陽盛陰虛’是指陽明腑實證一類疾患, 因邪在裏, 故宜急下, 反汗之而竭其津液, 所以致人於死.”

62) 丹波元胤.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008-1009. “按傷寒例又曰: 桂枝下咽, 陽盛即斃; 承氣入胃, 陰盛以亡. 据此, 表寒裏熱之解爲確.”

석과 비슷하다.

**바. 陽虛 陰盛을 ‘內外俱寒’으로, 陽盛 陰虛를 ‘內外俱熱’로 해석**

朱肱은 『活人書』에서 “『素問』에 이르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內熱, 陰盛則外寒.’이라고 하였다. (주석: 살펴보면, …… 이제 도리어 『素問』에서 논한 바 雜病의 陰陽虛盛의 4가지 證候를 합하여 仲景 傷寒의 2가지 證候를 증명한 것이다. 또한 陽盛外熱을 內熱로 고치고 陰盛內寒을 外寒으로 고치고, 별도로 『外臺』에서 논한 것을 억지로 견강부회하였으니, 어째서 그렇게 했는가?) …… 대저 榮衛란 것은 表, 陽이고 腸胃란 것은 裏, 陰이다. 寒毒이 榮衛의 가운데에 다투면 반드시 發熱 惡寒한다. 尺寸이 모두 浮大하면 안으로 반드시 심하게 躁動하지 않는다. 만약 微煩이 있고 그 사람이 따뜻한 것을 먹고 마시고자 하고 찬 것을 싫어하는 것을 ‘陽虛 陰盛’이라고 하니, 發汗하면 낫거니와 잘못하여 攻下하면 죽는다. 만약 寒毒이 榮衛의 안에서 부딪치면 결국 ‘陽盛 陰衰’로 변하게 되니, 陰이 다하면 陽으로 변하고 寒이 盛하면 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熱氣가 盛하여 裏로 들어가서 熱毒이 腸胃의 가운데에 들어가면 水液이 마르고 燥糞이 맺히게 된다. 그 사람은 밖으로 惡寒하지 않고 반드시 蒸蒸히 發熱하고 躁動하고 심하면 譫語한다. 그 脈이 浮滑하면서 數하거나 혹은 洪實하면 ‘陽盛 陰虛’가 되니 攻下하면 낫거니와 잘못 發汗하면 죽는다. …… (…… 또 살펴보면, 鹽簿 王宗正이 『難經疏義』에서 「陰陽盛虛汗下圖」를 만들어 『素問』과 부합하게 하였다. 이치로 살펴보면 여기 『活人書』의 第33問은 傳寫의 誤謬이니 마땅히 바르게 고쳐서 간행하여 後人을 그르치게 하지 말아야 한다.”)<sup>64)</sup>고

63) 唐湘清 著, 難經今釋. 北京. 國立編譯館. 1988. p.221. “本篇中段所謂‘傷寒有汗出而愈, 下之而死者; 有汗出而死, 下之而愈者.’ 這傷寒是泛指廣義的外感性發熱而言. 其中陽虛陰盛與陽盛陰虛的意義, 各註的解釋不一. 徐靈胎認為王安道溯河集以寒邪在外, 爲陰盛可汗, 熱邪內熾, 爲陽盛可下, 此說最爲無弊. 丹波元胤的難經疏證, 葉霖的難經正義, 亦都解爲寒邪外襲爲陰盛, 可汗而不可下; 熱邪內熾爲陽盛, 可下而不可汗. 王叔和的傷寒序例中說“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以亡.”更可說明上述解釋的正確.”

하였다.

朱肱은 『素問調經論』의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을 ‘陽盛則內熱, 陰盛則外寒.’으로 고쳐서 『難經·五十八難』과 비교하고 있는데, 『活人書』의 註釋에서 傳寫의 誤謬라고 설명하고 있다.

朱肱의 이 해석에 대해 徐大椿은 “『活人書』에 內外俱熱을 ‘陽盛陰虛’라고 하고 內外俱寒을 ‘陽虛陰盛’라고 하였다.”<sup>65)</sup>고 평가하였다.

즉, 徐大椿의 평가에 의하면, 朱肱은 『素問調經論』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에 근거하여 陽虛 陰盛은 각각 外寒·內寒에 해당하므로 ‘內外俱寒’으로 보아 發汗이 마땅하고, 陽盛 陰虛는 각각 外熱·內熱에 해당하므로 ‘內外俱熱’로 보아 攻下가 마땅하다고 본 것이다.

결국 朱肱의 해석은 『素問調經論』의 관점을 지키면서 동시에 『傷寒論』의 관점에 따라 陽虛陰盛, 陽盛陰虛를 각각 陰邪乘表虛(太陽表實證), 陽邪乘虛入腑(즉 陽明腑實證)로 귀결한 것이다.

그러나 ‘內外俱寒’의 表證 중 어느 症狀이 內寒에 해당하고 어느 症狀이 外寒에 해당하는지, 또 ‘內外俱熱’의 裏證 중 어느 症狀이 內熱에 해당하고 어느

64)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8. “『素問』云: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內熱, 陰盛則外寒. …… (批: 按, …… 今却將『素問』所論雜病陰陽虛盛四證合而引證仲景傷寒二證之發, 又改陽盛外熱作內熱, 陰盛內寒作外寒, 旁牽『外臺』所論合, 何耶?) …… 大抵榮衛爲表, 屬陽; 胃腑爲裏, 屬陰. 寒毒爭于榮衛之中, 必發熱而惡寒, 尺寸俱浮大, 內必不躁, 設有微煩, 其人飲食欲溫而惡冷, 謂陽虛陰盛也, 汗之則愈, 誤下則死. 若寒毒相搏于榮衛之內, 而陽盛陰衰, 極陰變陽, 寒盛生熱, 而陽熱之氣盛而入裏, 熱毒居腸, 水液乾涸, 燥糞結聚, 其人外不惡寒, 必蒸蒸發熱而躁, 甚則譫語, 其脈浮滑而數, 或洪實, 陽盛陰虛也, 下之則愈, 誤汗則死也. …… (……又按, 將作鹽簿王宗正『難經疏義』有陰陽盛虛汗下圖, 與『素問』合, 以理考之, 此是三十三問誤寫, 合行刊正, 勿誤後人.)”

65)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1. p.38. “傷寒例, 亦有陽盛陰虛, 汗之即死, 下之即愈; 陽虛陰盛, 汗之即愈, 下之即死之文. 諸家釋之, 不一其說. 成無已註, 即以陽邪乘虛入腑, 爲陽盛陰虛; 陰邪乘表虛, 客於榮衛, 爲陽虛陰盛. 外臺秘要, 及劉河間 傷寒直格, 俱以不病者爲盛; 病者爲虛, 活人書, 以內外俱熱, 爲陽盛陰虛; 內外俱寒, 爲陽虛陰盛, 惟王安道溯河集, 即以寒邪在外, 爲陰盛可汗; 熱邪內熾, 爲陽盛可下, 此說最爲無弊, 若不病者實, 病者爲虛之說, 與表病裏和, 裏病表和之說, 相近, 但虛實二字, 其義終未安也.”

症狀이 外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이 해석의 부족한 점이다.

한편, 朱肱이 陽·陰을 각각 外·內로 보아 陽虛陰盛를 ‘內外俱寒’으로, 陽盛陰虛를 ‘內外俱熱’로 해석한 것은, 滑壽 등 『難經』 註釋家들이 陽·陰을 각각 表·裏로, 盛·虛를 각각 不病·病으로 해석한 것과는 다르며, 成無己 등이 陽虛陰盛을 ‘陰邪乘表虛’로, 陽盛陰虛를 ‘陽邪乘虛入腑’로 해석한 것과는 궤를 같이 한다.

朱肱의 이러한 解釋을 龐安時<sup>66)</sup>가 따랐다.

## 2. ‘陽虛 陰盛’과 ‘陽盛 陰虛’의 臨床 意義 (發汗 攻下의 마땅함과 禁忌)

『難經·五十八難』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의 臨床 意義는, 陰陽病機의 다름에 따라 發汗과 攻下의 마땅함과 禁忌를 제시한 점이다.

일찍이 成無己는 『傷寒序例』에서 “桂枝湯이란 것은 發汗하는 藥이고 承氣湯이란 것은 攻下하는 藥이다.” 『金匱玉函』에 가로되, 마땅히 發汗해서는 아니 되거늘 억지로 주어 發汗하는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津液을 빼앗아 말라서 죽게 하고, 마땅히 攻下해서는 안 되거늘 억지로 주어 攻下하는 경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開腸 洞泄하고 대소변이 不禁하여 죽는다.”<sup>67)</sup>고 하였다.

66) 龐安時. 朱肱·龐安時醫學全書傷寒總病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2. “龐曰: 陰陽虛盛者, 非謂分寸寸也. 榮衛者, 表陽也. 腸胃者, 裏陰也. 寒毒爭於榮衛之中, 必發熱惡寒, 尺寸俱浮大, 內必不甚躁. 設有微煩, 其人飲食欲溫而惡冷, 謂陽虛陰盛也, 可汗之則愈, 若誤下則死也. 若寒毒相搏於榮衛之內, 而陽盛陰衰, 極陰變陽, 寒盛生熱, 熱氣盛而入裏, 熱毒居腸胃之中, 水液爲之乾涸, 燥糞結聚, 其人外不惡寒, 必蒸蒸發熱而躁, 甚則譫語. 其脈浮滑而數, 或洪實, 或汗後脈雖遲, 按之有力, 外證已不惡寒, 腹滿而喘, 此皆爲陽盛陰虛, 當下之則愈, 若誤汗則死也. 仲景載三等陽明, 是陽盛陰虛證矣. 調經論云: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 以此別之. 若陰瀉而陽氣暴絕, 必四肢逆冷, 臍築腹痛, 身斑如破杖, 面青, 或吐, 或利, 脈細欲絕, 名曰陰毒也. 須急灸臍下, 服以辛熱之藥, 令陽氣復生, 澌然汗出而解. 若陽瀉而陰氣暴絕, 必發躁, 狂走妄言, 面赤咽痛, 身斑如錦文, 或下利赤黃, 脈洪實或滑促, 名曰陽毒也. 宜用針泄熱, 服以苦酢之藥, 令陰氣復生, 澌然汗出而解也.”

67) 成無己 著. 傷寒論注·傷寒序例(『仲景全書』中). 서울. 大星

이로써 成無己는 桂枝湯을 發汗하는 藥으로, 承氣湯을 攻下하는 藥으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王履는 “어떤 이가 나에게 묻기를 ‘仲景의 『傷寒論』에서 이것을 인용하고서 “桂枝湯을 복용할 때 陽盛하면 죽고 承氣湯을 복용할 때 陰盛하면 망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무릇 桂枝湯은 表藥이고 承氣湯은 裏藥이니 반대로 하면 害가 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다. 그러나 麻黃湯도 表藥이거늘 언급하지 않은 것은 왜인가?’ 또한 ‘자네가 陰盛을 寒邪라고 하니 寒邪에는 진실로 麻黃湯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거늘 이제 도리어 桂枝湯으로 예를 드니 또한 왜인가?’ 내가 가로되 ‘어찌하여 仲景의 말을 吟味하지 않는가? 仲景이 “무릇 傷寒의 病은 흔히 風寒에서 생긴다.”고 하고, 또한 “脈이 浮緊할 때, 浮는 風이고 緊은 寒이다.”고 하고, 또 桂枝湯 條文에 가로되 “畜畜惡寒하고 漸漸惡風한다.”고 하고, 麻黃湯 條文에 “惡風”이라고 하였다. 무릇 風寒은 나누어 말하면 風은 陽이고 寒은 陰이지만, 風이 진실로 天地가 매우 추운 때에 분다면 그것을 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는 風과 寒이 항상 서로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桂枝湯과 麻黃湯은 다 溫劑이다. 溫劑로 치료한다는 것으로 족히 風寒이 모두 陰邪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衛를 傷하면 桂枝湯이 마땅하고 榮을 傷하면 麻黃湯이 마땅하다. 榮과 衛가 비록 다르나 그 表라는 것은 한 가지일 뿐이다. 仲景의 이 말은 단지 發汗과 攻下의 잘못을 경계하는 것을 위주로 한 것이지, 榮衛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桂枝湯을 예로 들면 麻黃湯이 그 가운데에 있다. 이른바 陽盛하면 곧 죽는다는 것은 表證이 이미 끝나고 裏證이 이미 완전해지면 攻下가 옳고 發汗이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이른바 陰盛하면 망한다는 것은 裏證이 나타나지 않고 表證만 홀로 갖추어지면 發汗이 옳고 攻下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越人과 仲景의 본뜻이 거의 그 가운데에 잘 펼쳐져 있다.”<sup>68)</sup>고 하였다.

文化社. 1992. p.104. “桂枝湯者, 發汗藥也. 承氣湯者, 下藥也. 金匱玉函曰: 不當汗而強與汗之者, 令人奪其津液, 枯燥而死; 不當下而強與之下者, 令人開腸洞泄, 便溺不禁而死.”

이로써 王履는 「傷寒序例」의 ‘發汗하는 藥으로서 桂枝湯을 언급하고 麻黃湯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桂枝湯은 發汗하는 藥의 대표로 삼은 것이므로 비록 麻黃湯을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속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李梴은 『醫學入門·汗吐下滲和解溫補總方』에서 “또 이르되, ‘桂枝湯을 복용할 때 陽盛하면 곧 죽는다.’고 하였다. 그 ‘桂枝湯’은 麻黃湯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桂枝湯도 또한 發汗하는 藥인가?** 대개 表陽이 虛한 뒤에 風邪가 틈타서 榮衛의 가운데에 침입할 수 있으니, 榮衛도 또한 皮毛의 表分에 속한다. 發散이 아니면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는가! 또한 桂枝湯이 비록 능히 止汗하지만, 또한 능히 和血하여 汗이 스스로 나게 된다. 肉桂와 대비하여 말하면 실로 發汗하지만 麻黃과 대비하여 말하면 止汗한다. 요약하면, **麻黃湯과 桂枝湯은 모두 表藥이다. 하나(麻黃湯)는 크게 發汗하고 하나(桂枝湯)는 解肌한다.** 다만 有汗에는 麻黃湯을 사용하지 못하고 無汗에는 桂枝湯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실로 仲景의 格言이다.”<sup>69)</sup>라고 하였다.

이로써 李梴은 「傷寒序例」의 桂枝湯은 본래 傷風

有汗을 치료하여 止汗하는 것이지만, 傷寒 無汗을 치료하여 發汗하는 麻黃湯처럼 ‘表藥’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李梴은 「傷寒序例」의 내용은 桂枝湯과 麻黃湯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表藥의 대표임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南京中醫學院은 『難經校釋』에서 “이는 곧 表實證에는 汗法을 사용하여 發汗하여 邪氣로 하여금 汗으로 풀리게 함이 마땅하거나, 만약 잘못하여 下法을 사용하면 裏虛邪陷에 이르게 되어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낸다. 이와 반대로 裏實證에는 下法을 사용하여 熱結을 瀉하여 邪氣로 하여금 대변을 통해 泄하게 함이 마땅하거나, 만약 잘못하여 汗法을 사용하면 陰液耗竭에 이르게 되어 또한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sup>70)</sup>고 하였다.

이로써 南京中醫學院은 『難經』의 發汗과 攻下の 마땅함과 禁忌에 대해 구체적인 處方 名稱을 언급하지 않고 다만 發汗藥, 攻下藥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傷寒序例」의 ‘桂枝’와 같은 오해를 만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 許浚은 『難經』의 ‘陽虛陰盛 陽盛陰虛’에 대해서는 王燾의 견해를 따라 表裏를 가리킨다고<sup>71)</sup> 하였으나, 그 치료의 마땅함과 禁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지 「傷寒序例」를 따르고 있다.<sup>72)</sup>

### 3. 「傷寒序例」, 「素問」과 비교

徐大椿의 『難經經釋』, 葉霖의 『難經正義』, 南京中醫學院의 『難經譯釋』, 凌耀星的 『難經校注』, 丹波元

68) 王履, 醫經溯回集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957-958. “或詰予曰: 仲景「傷寒論」引此 而繼以“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以亡”之語 夫桂枝表藥 承氣裏藥 反則爲害 是固然矣 然麻黃湯亦表藥也 其不言之何歟? 且子以陰盛爲寒邪 寒邪固宜用麻黃也 今反舉桂枝 又何歟? 予曰: 何不味仲景之言乎? 其曰: 凡傷寒之病 多從風寒得之 又曰: 脈浮而緊 浮則爲風 緊則爲寒 又桂枝湯條 而曰 齋齋惡寒 漸漸惡風 麻黃湯條 而曰 惡風 夫風寒分言 則風陽而寒陰 風苟行於天地嚴凝凜冽之時 其得謂之陽乎? 是則風寒常相因耳 故桂枝, 麻黃皆溫劑也 以溫劑爲治 足以見風寒之俱爲陰邪矣 但傷風則桂枝 傷寒則麻黃 榮衛雖殊 其爲表則一耳 仲景此言 但以戒汗下之誤爲主 不爲榮衛設也 舉桂枝則麻黃在其中矣 所謂陽盛即斃者 是言表證已罷 而裏證既全 可攻而不可汗: 所謂陰盛以亡者 是言裏證未形 而表證獨具 可汗而不可攻 由是觀之 則越人, 仲景之本旨 庶乎暢然於其中矣.”

69)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298. “又云 桂枝下咽, 陽盛則斃. 桂枝, 包麻黃而言, 然則桂枝亦發汗藥乎. 蓋表陽虛而後風邪得以乘之, 客於榮衛之中, 榮衛亦屬皮毛表分也. 非發散, 何由得愈. 且桂枝, 雖能止汗, 亦能和血而令汗自出也. 對肉桂而言, 實爲發汗, 對麻黃而言, 則爲止汗. 要之, 麻桂皆表藥也. 一則大汗, 一則解肌, 但有汗不得用麻黃 桂枝, 無汗不得用桂枝, 實仲景格言也.”

70)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者.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30-131. “這就是表實證宜用汗法以發其汗, 使邪從汗解; 如果誤用下法, 則可到致裏虛邪陷, 造成不良後果. 反之, 裏實證宜用下法以瀉熱結, 使邪從便泄; 如果誤用汗法, 則可到致陰液耗竭, 也會造成不良後果.”

71)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127. “陽盛陰虛, 下之則愈. 汗之則死; 陰盛陽虛, 汗之則愈, 下之則死, 此陰陽, 指表裏而言之也.”

72)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127. “桂枝下咽, 陽盛則斃, 承氣入胃, 陰盛乃亡. 『仲景』”

胤의 『難經疏證』, 滕萬卿의 『難經古義』, 本間祥白의 『難經之研究』 등은 『難經』의 내용과 『傷寒論』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였다.

특히 本間祥白은 『素問調經論』과의 모순을 제기하였는데, 그는 “여기에서의 문제는 陽虛陰盛에 땅이 나면 낮다는 것과 『素問調經論』의 ‘陽虛外寒, 陰實內寒’의 症狀의 문제이다. …… 太陽病은 『傷寒論』에서 말하길 ‘太陽의 病은 脈浮, 頭項強痛하고 惡寒한다.’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보건대, 이른바 發汗할 수 있는 證은 表熱과 脈浮이다. 이 證은 『素問調經論』의 “陽實外熱”의 證인데 『難經』의 “陽虛陰盛, 汗出而愈”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難經』에서 말한 陽虛는 熱과 脈의 外症을 표현한 것이 결코 아니므로, 별도로 이와 같이 앞에서 해석한 表部(陽位)의 正氣의 虛라고 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素問』에서 말한 陽虛가 外寒이 된다는 것은 外熱과 완전히 서로 다른 病症임을 알 수 있다.”<sup>73)</sup>고 하였다.

本間祥白은 또 “이른바 ‘陽虛’는 곧 體表部에 邪氣가 있어서 正氣가 虛弱하지만 陰部는 邪氣가 없어서 正氣가 實盛하다는 뜻이다.”<sup>74)</sup>고 하였는데, 이는 『素問評熱病論』의 “邪氣所湊, 其氣必虛”의 관점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韓方病理學』에서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은 陰陽偏勝에 속하는데 陽은 表에 속하고 陰은 裏에 속한다고 보아, 陽이 盛하면 陽이 肌表에 울체되어 惡寒, 發熱, 無汗의 증상이 나타나며, 正邪相爭이 극렬하면 身熱無汗, 喘促, 口齒乾燥, 煩躁, 腹滿

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陰이 盛하면 陽氣를 困竭시켜 厥冷, 喜熱飲, 小便清長과 같은 임상증상으로 나타낸다고<sup>75)</sup> 하였고, “陽虛則寒(虛寒) 陰虛則熱(虛熱)”은 陰陽偏衰에 속하는데 陰 또는 陽의 偏衰로 “精氣奪則虛”의 虛證을 가리킨다고<sup>76)</sup> 하였다.

이처럼 『素問調經論』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에 대한 해석은 「通評虛實論」의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를 근거로 陽虛·陰虛는 正氣의 虛弱을 가리키고 陽盛·陰盛은 邪氣의 實盛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sup>77)</sup> 일반적인 해석이다.

그러나 『素問調經論』의 陽虛·陰虛은 『難經五十八難』, 「傷寒序例」의 ‘陽虛 陰盛’과 전혀 다르며, 『素問調經論』의 陽盛·陰虛는 『難經』, 「傷寒序例」의 ‘陽盛 陰虛’와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成無己 등의 관점으로 볼 때, 「調經論」의 陽虛·陰虛는 모두 正氣의 虛弱을 가리키지만, 『難經』, 「傷寒序例」의 陽虛·陰虛는 각각 表虛·裏虛를 가리킨다. 또한 「調經論」의 陽盛·陰盛은 각각 表實·裏實을 가리키지만 『難經』, 「傷寒序例」의 陽盛·陰盛은 각각 熱邪·寒邪를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成無己 등의 관점으로 볼 때, 「調經論」과 비교하면 ‘陽盛則外熱’은 『難經』의 ‘陽虛 陰盛’ 및 『傷寒論』의 ‘太陽表實證(表寒)’에 해당하고, ‘陰虛則內熱’은 『難經』의 ‘陽盛 陰虛’ 및 『傷寒論』의 ‘陽明腑實證(裏熱)’에 해당한다.

즉, 「調經論」의 ‘陰虛’는 『難經』의 ‘陽盛 陰虛’에 해당하고, 「調經論」의 ‘陽盛’은 『難經』의 ‘陽虛 陰盛’에 해당하게 되니, 本間祥白의 지적대로 서로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朱肱은 『素問調經論』에 근거하여 陽虛·陰虛은 각각 外寒·內寒에 해당하므로 ‘內外俱寒’으로 보아 發汗이 마땅하

73) 本間祥白 著. 難經之研究. 發行地 未詳. 正言出版社. 1965. pp.345-348. “這裏所成爲問題的是, 陽虛陰盛, 汗出而愈, 及『素問調經論』所謂“陽虛外寒, 陰實內寒”之症的問題. …… 太陽病在傷寒論則說: “太陽之爲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 由此觀之, 所謂可汗之證, 是爲表熱和脈浮. 此證在『素問調經論』是爲 “陽實外熱”之證. 與此難經的“陽虛陰盛, 汗出而愈” 互不一致, 因此難經之所謂陽虛, 並非表現於熱和脈的外症, 自應認爲是如同前面所解釋的外表部(陽位)的正氣之虛. 由此可知, 素問所說的陽虛是爲外寒, 乃與外熱完全相反的病症.”

74) 本間祥白 著. 難經之研究. 發行地 未詳. 正言出版社. 1965. pp.345-348. “所謂陽虛, 就是體表部因有邪氣而正氣虛弱, 陰部則無邪氣而正氣實盛的意思.”

75)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韓方病理學. 발행지 미상. 한의문화사. 2007. p.241.

76)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韓方病理學. 발행지 미상. 한의문화사. 2007. p.242.

77) 素問研究集成 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제7권). 익산. 素問研究集成 刊行委員會. 2001. pp.67-71.

고 陽盛·陰虛는 각각 外熱·內熱에 해당하므로 ‘內外俱熱’로 보아 攻下가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朱肱의 해석은 『素問調經論』의 관점을 충실히 따르면서, 또 『傷寒論傷寒序例』의 관점에 따라 陽虛 陰盛, 陽盛 陰虛를 각각 陰邪乘表虛(太陽表實證), 陽邪乘虛入腑(즉 陽明腑實證)로 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內外俱寒’의 表證 중 어느 症狀이 內寒에 해당하고 어느 症狀이 外寒에 해당하는지, 또 ‘內外俱熱’의 裏證 중 어느 症狀이 內熱에 해당하고 어느 症狀이 外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이 朱肱의 해석의 부족한 부분이다.

『素問調經論』과 『難經·五十八難』의 차이점에 대해 『活人書』의 註釋에서 “(주석: 살펴보건대, …… 이제 도리어 『素問』에서 논한 바 雜病의 陰陽虛盛의 4가지 證候를 합하여 仲景 傷寒의 2가지 證候를 증명하는 것이다.”<sup>78)</sup>라고 하였다.

즉, 『素問調經論』은 陰虛·陽虛의 2가지 虛損病과 陽盛·陰盛의 2가지 外感病을 포함하여 총 4가지 雜病을 논한 것이고, 『難經·五十八難』은 表證·裏證의 총 2가지 傷寒病을 논한 것이다.

이 설명에 의하면, 『難經·五十八難』의 내용은 『素問調經論』의 내용의 일부분에 해당되는데, 이는 『素問調經論』과 『難經·五十八難』의 관련성을 잘 설명하였다고 생각한다.

## IV. 結 論

『難經·五十八難』의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의 意味와 臨床 意義에 대해 『難經』 및 『傷寒論』의 註

釋書를 비롯하여, 기타 醫書의 내용을 서로 比較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의 해석에 대한 관점은 대체로 錯簡說(또는 傳寫의 誤謬說)을 제외하고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陽陰은 각각 寸脈·尺脈으로 볼 수 있고, 둘째 陽陰은 각각 六氣病의 陽陰으로 볼 수 있고, 셋째 陽陰은 각각 表·裏로, 盛虛는 각각 表·裏의 正氣偏盛(不病)·邪氣所湊(病)으로 볼 수 있고, 넷째 陽虛陰虛는 각각 表·裏의 正氣虛弱으로, 陽盛陰盛은 각각 邪氣實盛(熱邪·寒邪)으로 볼 수 있고, 다섯째 陽虛陰盛은 ‘內外俱寒’으로, 陽盛陰虛은 ‘內外俱熱’로 볼 수 있다.

2. 錯簡說 또는 傳寫 誤謬說과 첫째, 둘째 관점은 後世 醫家들에게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3. 셋째 관점은 대체로 『難經』 註釋家들이 많이 지지하였고, 넷째 관점은 대체로 『傷寒論』 註釋家들이 많이 지지하였다.

이런 두 관점은 ‘盛’과 ‘虛’가 가리키는 바가 서로 반대된다.

즉, 셋째 관점은 ‘盛’을 ‘正氣偏盛(不病)’으로 보나 넷째 관점은 ‘邪氣實盛’으로 보며, 셋째 관점은 ‘虛’를 ‘邪氣所湊(病)’으로 보나 넷째 관점은 ‘正氣虛弱’으로 본다.

4. 『素問評熱病論』의 “邪之所湊, 其氣必虛”와의 관련성을 중시한다면 셋째 관점이 가장 타당하며, 『素問通評虛實論』의 “邪氣盛則實; 精氣奪則虛.” 및 『傷寒論傷寒序例』와의 관련성을 중시한다면 넷째 관점이 가장 타당하지만 셋째 관점은 전혀 부합하지 않으며, 『素問調經論』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과의 관련성을 중시한다면 朱肱, 龐安時 등이 주장한 다섯째 관점이 가장 타당하다.

5. 『難經·五十八難』과 『素問調經論』을 비교하면, 『難經』의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은 傷寒病의 病

78)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8. “(批: 按, …… 今却將『素問』所論雜病陰陽虛盛四證合而引證仲景傷寒二證之發, 又改陽盛外熱作內熱, 陰盛內寒作外寒, 旁牽『外臺』所論合, 何耶?) …… 大抵榮衛爲表, 屬陽; 胃腑爲裏, 屬陰. 寒毒爭于榮衛之中, 必發熱而惡寒, 尺寸俱浮大, 內必不躁, 設有微煩, 其人飲食欲溫而惡冷, 謂陽虛陰盛也, 汗之則愈, 誤下則死. 若寒毒相搏于榮衛之內, 而陽盛陰衰, 極陰變陽, 寒盛生熱, 而陽熱之氣盛而入裏, 熱毒居腸, 水液乾涸, 燥糞結聚, 其人外不惡寒, 必蒸蒸發熱而躁, 甚則譫語, 其脈浮滑而數, 或洪實, 陽盛陰虛也, 下之則愈, 誤汗則死也. …… (……又按, 將作鹽簿王宗正『難經疏義』有陰陽盛虛汗下圖, 與『素問』合, 以理考之, 此是三十三問誤寫, 合行刊正, 勿誤後人.)”

機에 해당하고, 「調經論」의 “陽虛則外寒, 陰虛則內熱; 陽盛則外熱, 陰盛則內寒.”은 주로 雜病(傷寒病을 포함)의 病機에 해당한다.

6. 『難經』의 ‘傷寒 陽虛陰盛, 陽盛陰虛’에 대한 臨床 意義에 대해 「傷寒序例」에서 桂枝湯과 麻黃湯을 예로 들어 발명하였는데, 이때 桂枝湯은 表藥(發汗藥)의 대표로서 麻黃湯이 포함된 개념이다.

## 參考文獻

### <論文>

1. 송미령, 김용진, 윤창렬. 難經 중 疾病條에 對한 研究(II).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4(1). 1995.

### <單行本>

1.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p.95.
2. 加藤宗博. 盧經哀腋.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4. pp.187-188.
3.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著. 難經校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9. pp.130-131.
4. 南京中醫學院醫經教研組 編著. 難經譯釋. 臺中. 昭人出版社. 1987. p.199.
5. 丹波元簡. 中國醫籍考.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64, 66.
6. 丹波元胤. 難經疏證.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4. pp.1008-1009.
7. 唐湘清 著. 難經今釋. 北京. 國立編譯館. 1988. p.221.
8. 陶節菴. 傷寒六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0. p.189.
9.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p.105.
10. 龐安時. 朱肱·龐安時醫學全書·傷寒總病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2.
11. 本間祥白 著. 難經之研究. 發行地未詳. 正言出版社. 1965. pp.345-348.
12. 徐靈胎. 徐靈胎醫學全書·難經經釋. 北京. 中國

中醫藥出版社. 2001. p.38.

13. 葉霖. 難經正義.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p.101.
14. 成無己 著. 傷寒論注(『仲景全書』中). 서울. 大星文化社. 1992. pp.103-104.
15. 素問研究集成 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제7권). 익산. 素問研究集成 刊行委員會. 2001. pp.67-71.
16.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傷寒論綱目.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612.
17. 王九思 等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52.
18. 王燾. 王燾醫學全書·外臺秘要.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8.
19. 王履. 醫經溯回集·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1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957-958.
20. 王洪圖, 煙建華 編. 難經. 北京. 春秋出版社. 1988. p.85.
21. 尤在涇. 尤在涇醫學全書·傷寒貫珠集.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8.
22. 윤창렬 編역. 韓中醫學各家學說. 대전. 주민출판사. 2006. p.390.
23. 윤창렬, 김용진 編역. 難經研究集成. 대전, 주민출판사. 2002. p.800.
24. 李梴. 醫學入門(下). 서울. 南山堂. 1991. p.1108, 1298, 1380. pp.1341-1342.
25. 張璐. 傷寒續論.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99. p.637.
26. 張世賢. 圖註難經脈訣. 臺南. 大孚書局. 1977. p.2(卷四).
27. 錢潢. 傷寒溯源集·中華醫典CD(upgrade edition). 北京. 湖南電子音像出版社. 2006.
28. 朱肱. 朱肱·龐安時醫學全書·活人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8.
29.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醫學全書·傷寒直格論方. 서울. 法仁文化社. 2007. p.329.
30. 한방병리학 교재편찬위원회 編역. 韓方病理學. 발행지 미상. 한의문화사. 2007. pp.240-241.

31. 韓祇和. 傷寒微旨·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6).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p.547-548.
32.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九十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75.
33.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發微論.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47.
34. 許叔微. 許叔微醫學全書·傷寒百證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p.7-8.
35. 허준 著. 동의문헌연구실 譯. 신증보대역 동의보감. 서울. 법인문화사. 2012. p.1127.
3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07, 124, 218.
37. 滑壽 著. 尹暢烈, 李南九, 金善鎬 編譯. 難經本義. 대전. 周珉出版社. 2003. p.257.
38.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難經懸解.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409.
39. 黃維三. 難經發揮. 臺中. 中國醫藥學院出版社. 1990.